

보도시점 2025. 9. 11.(목) 06:00
9. 11.(목) 석간

배포 2025. 9. 10.(수) 14:00

식물검역의 새로운 미래, 연구개발로 연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 개청(9.10.)
- 과수화상병, 포도피어슨병 등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 대응 연구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9월 10일 경상북도 김천 소재 본부에서 농촌진흥청, 학회, 대학 등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의 개청식을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포도피어슨병 등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 차단 및 신속대응 기술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의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은 실험에 사용하는 식물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 밀폐 온실, 음압 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02㎡의 규모로 지난해 8월 신축되었으며,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물안전3등급(BL3)* 허가를 받았다.

*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취급 병원체의 전염력 위험도 등에 따라 실험실을 4개 등급(BL1~BL4)으로 구분하며, 3등급 시설은 음압과 HEPA필터 등을 통해 병원체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함

검역본부는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활용하여 그간 유출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고위험 식물병원체의 생리·생태, 조기탐지, 신속진단, 박멸기술 등의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연구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민간의 식물검역 관련 연구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청식 이후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식물병해충 연구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외래병해충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은 고위험 외래 식물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 연구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외래병해충의 침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식물검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 개요

별첨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 개청식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홍현 (054-912-0670)
		담당자	사무관	신현경 (054-912-0671)



1. 건립 목적

□ 열대·아열대 고위험 식물병원체 침입 대응기술 연구 추진

-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검역병원체의 생리·생태, 조기탐지, 신속진단, 박멸기술 등 연구를 위해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구축

2. 시설 개요

- 위치 : 검역본부 부지 내(김천시 용전로 167,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 규모 : 연면적(3,102㎡) 대지면적(2,083㎡), 지상3층 지하1층
- 예산 : 19,775백만원
- 사업기간: 총 4년('21.7.~'25.7.)
 - (설계) '21.7.~'22.7. → (시공) '23.1.~'24.8. → (검증) '24.8.~12 → (인허가) '25.1.~7.
- 시설 구성

구분	시설
지상 1층	(BL3) 자연광·인공광 밀폐온실, 실험실, 준비실, 초저온보관실, 멸균실 등 (BL2) 자연광 온실, 실험실, 준비실 (일반구역) 감시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등
지상 2층	필터룸
지상 3층	공조실
지하 1층	기계실 및 폐수처리시설

3. 시설 전경



시설 전경(온실방향)



시설 전경(주출입구 방향)



연구시설 평면도(BL3구역)